“로힝야 난민 문제, 연기적 사유로 접근을”

문유정 강사,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2017년 발생 ‘로힝야족 사태’
중국 등 지정학적 이해 작용
‘국제법적 정의’ 한계 보여줘

19세기부터 이어진 복합 문제
미디어 내 혐오가 사태 한 몫
‘가해자-피해자’ 이분법 아닌
不二 연기관으로 문제 접근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며 시작된 ‘로힝야족 사태’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국제 문제다.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로힝야족 사태’를 단순히 미얀마 내 민족·종교 갈등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들의 문제를 ‘가해자-피해자’라는 단순 구조가 아닌 연기적 사유로 접근해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유정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사진>는 8월 29일 열린 불교평론·아시아종교평화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로힝야 난민과 전쟁 고통의 불교적 성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서울 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태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 강사는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국제법적 정의와 국제인권 보호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인 로힝야 난민들. 로힝야 난민 문제는 역사 · 경제 · 정치 · 외교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국경없는의사회

실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서 미얀마는 핵심경로에 있는 국가이고, 미얀마 군부와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연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거나 제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강사는 “로힝야 사태는 말해질 수 없는 구조적 고통이자, 국제법적 한계와 윤리적 선택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폐·왜곡되는 고통”이라며 “이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 정의’라는 담론이 실제 기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로힝야 사태는 ‘가해자-피해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그렇기에 문 강사는 로힝야 사태를 “연기적 사유를 통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식민지 이주 정책에서 시작된 로힝야족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버마 민족주의 강화·민족국가 탄생·이슬람에 대한 편견 등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내재됐다. 여기에 페이스북과 같은 SNS,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는 사태를 촉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국가 간 역학·이해관계 역시 로힝야족 난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로힝야족의 인권은 명백히 보호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문 강사는 “연기적 사유는 고통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기보다 현상의 직시를 가로막는 무명(無明)과 삼독심을 통찰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이(不二)의 연기관은 로힝야 난민 문제와 기후위기, 전쟁과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 대안적 세계관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유는 학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깨를 맞대고 고통의 현실을 함께 짊어지는 실천적 수행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찬수 아시아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의 ‘전쟁의 이유, 종교의 자리, 명멸하는 평화’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장의 ‘한국전쟁과 그리스도교’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태평양전쟁과 일본불교’ △홍미정 단국대 교수의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평화’ △이병성 연세대 강사의 ‘가톨릭과 개신교 30년 전쟁이 남긴 것’ 등이 발표됐다.

근대 불모 금호 약효 스님 신중도 ‘환지본처’

조계종 · 마곡사 獨 경매 낙찰
8월 21일 마곡사 성보博 이운

근대 대표 불모인 금호당 약효 스님(?~1928)이 조성한 금산 보석사 신중도가 환지본처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국외로 유출되어 독일 경매에 출품된 충남 금산 보석사 ‘신중도’를 환수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외 한국문화유산 경매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신중도’ 1점을 발견했다. 화기(畵記) 앞부분의 제작 연호와 봉안 사찰명이 일부 훼손됐으나 보석사로 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기에 바로 보석사와 본사인 마곡사에 해당 내용을 전했다. 이후 마곡사는 적극적으로 환수 의사를 종단에 밝혔으며, 이에 종단과 마곡사는 협의를 거쳐 경매에 참여, 지난 6월 26일 낙찰받았다.

‘충남 금산 보석사 신중도’는 통관 및 이송을 위한 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21일 국내로 반입돼 마곡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됐다.

환지본처한 신중도는 1886년 금호 약효 스님이 그린 것으로, 특히 약효 스님이 화업을 시작하던 시기의 불화로 스님의 초기 화풍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약효 스님은 1879년 봉녕사 ‘석가설법도’를 시작으로 약 100여 점이 넘는 불화를 남긴 근대의 대표적인 불모다.

약효 스님은 입적까지 마곡사에 주석하며 많은 불화를 남겼다. 마곡사는 약효 스님을 기리며 매년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스님의 뜻을 이어 현재 금어원도 건립 중이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마곡사와 인연이 깊은 성보가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앞으로도 종단은 관계기관, 사찰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성보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독일 경매에서 낙찰 받아 환지본처한 금산 보석사 신중도. 근대 대표 불모인 금호당 약효 스님이 조성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3일 지정 예고
“조선 佛殿 양식 변천 확인”



보물로 지정 예고된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선 중기 건립된 것으로 추청되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장(청장 허민)은 “조선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 주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안동 광흥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특히 조선 전기에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뤄졌던 안동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망와에 기록된 글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이전인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사찰의 큰 화재로 주불전이었던 대웅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지만, 응진전은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화를 면했다. 이후로 사실상 광흥사의 중심 불전 기능을 수행하게 된 보기 드문 역사성을 지닌다.

광흥사 응진전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 정면의 공포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로 화려하게 조성했으며, 옆면과 뒷면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고 꽃 문양이 그려진 화반으로 장식하여 정면을 강조했다.

특히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여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잘 보여 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응진전에 봉안돼 있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며, 총 42구로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그 수가 많고 배치가 특이하여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안동 광흥사 응진전’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마곡사, ‘디지털 사지’ 제작 추진

8월 27일 업무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完
인물 등 4개 테마로 구성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8월 27일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사진 왼쪽)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태화산 마곡사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사지(寺誌)’ 제작이 추진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8월 27일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사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K-부디즘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최연식 교수, 이하 사업단)에서 제작하는 불교문화콘텐츠다. 사업단은 각 사찰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기록유산을 엮어 책자 형태로 간행하던 전통적인 사찰지를 지속 가능하고 대중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2022년 ‘지리산 화엄사’를 시작으로 2023년 ‘팔공산 은해사’, 2024년 ‘덕숭산 수덕사’를 제작해 한국불교문화포털에 공개해 왔다. 올해에는 ‘태화산 마곡사’와 ‘조계산 송광사’를 제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디지털사지-태화산 마곡사’를 포털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화산 마곡사’는 역사·인물·가람·신행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삼국사(三國師)로 불리는 자장·범일·도선 스님을 중심으로 천년고찰 마곡사의 역사를 다룬다. 또한, 금용 일섭 등 근현대 스님 및 백범 김구와 같은 역사적 인물 중 마곡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을 발굴해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마곡사의 현재를 잘 보여 주는 마곡사의 사회 공헌 활동, 성보박물관 등 문화시설, 대중 친화적인 포교 활동까지 담아내, 마곡사가 한국불교에서 가지는 위상을 재조명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 제작은 1700년간 이어져 온 한국불교 전통을 현대 기술로 전승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그 내용은 한글 문장으로 쉽게 서술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한국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반으로서 ‘한국불교문화포털’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소개되던 마곡사의 역사와 가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마곡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구미 대둔사, 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

9월 14일 산사음악회서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가 9월 14일 경내 일원에서 ‘호국사찰 대둔사 산사음악회-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 낸 대표적 고승 사명 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삶과 행적을 현대적 뮤지컬로 재현하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된다.

극단 야성이 준비한 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에서는 주제곡을 비롯해 △선조와 동인 서인들 △나는 전쟁을 원해(토요토미 솔로곡) △일어나라 승병들아! △대마도에서(사명 대사 솔로곡) 등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곡해설은 이진국 극단 야성 단장이 맡는다. 호국불교의 서사와 웅장한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지 서원 스님은 “사명 대사가 대둔사에서 이룬 호국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 뜻을 되새기고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직지사의 사명 대사 공원을 둘러보시고 저녁에는 대둔사에서 갈라쇼를 관람한다면 역사를 음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라쇼는 대둔사가 주최하고 조계종 문화부와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후원한다. 무료 관람.

행사 당일 방문객은 사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둔사로 문의하면 된다. 054-482-3807

김내영 기자